

4) 장정저수지(長井貯水池)

1975년경에 착공하여 3년여 만에 준공된 이 저수지는 장정동 입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담수량도 풍부하여 금매리 앞들에 관수하고 있다. 또 주위의 산과 계곡의 경치가 아름답고 조용하며 잉어와 붕어 등 많은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어 낚시꾼들이 찾아들고 있다.

제3절 금매2리(金梅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매화천이 흐르고 건너편 7번 국도변에 금매1리가 있다. 서쪽은 남수산(嵐岵山) 지맥이 마을 뒷산이며, 남쪽은 매화 2리와 인접하고, 북쪽은 근남면 구산리와 경계를 이루며 1.5km 거리에 성류굴이 있다. 마을회관은 2019년에 신축되었다.

2. 마을의 역사

금매2리를 몽천동(蒙泉洞)이라 하는데, 1630년경에 매오공(梅塢公) 윤몽열(尹夢說)이라는 선비가 이 마을을 개척하여 몽천(蒙泉)이라 하였다고도 하고, 또 이우당(二友堂) 주개신(朱介臣)공과 윤몽열(尹夢說)이 이곳에 정자(亭子)를 짓고 몽천(蒙泉)이라 하였다고도 전한다. 언덕에 서당(書堂)을 짓고 어릴 때 덕(德)을 키운다고 하여 “몽이양정(蒙以養正), 몽이육덕(蒙以育德)”의 몽(蒙)자와 샘물천(泉)자를 따서 동명(洞名)을 지었는데 몽천서당에서 유래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62세대가 거주하며 의령 남씨(宜寧南氏), 영양 남씨(英陽南氏), 파평 윤씨(坡平尹氏),新安 주씨(新安朱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독치골(獨峙谷)

이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재가 높고 우뚝 솟아있는 독봉(獨峯)이라 하여 부르던 이름이다.

2) 몽천서원(蒙泉書院)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에 있는 조선 후기 윤시형과 윤사진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이다. 1693년(숙종 19) 지방 유림이 윤시형(尹時衡)과 윤사진(尹思進)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737년(영조 13)에 ‘夢泉(몽천)’이라고 사액 되어 선현 배향과 지방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다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철됐다. 이후 1977년 유림과 후손들이 협력하여 사우(祠宇)를 복원하였고, 1988년 윤시형, 윤사진 신도비를 세웠다. 경내의 건물로는 2칸의 사우, 신문(神門), 동·서 협문(夾門), 삼조어비각(三朝御批閣) 등이 있다.

3) 삼조어비각(三朝御批閣)

울진군 매화면 금매리 몽천동 지담(池潭) 위에 있는 조선 후기 비각이다. 1774년(정조 19)에 몽천서원(蒙泉書院) 옆에 창건(創建)된 비각이다. 삼조어비(三朝御批)란 효종이 우암(憂菴) 윤시형(尹時衡)에게 내린 비지(批旨)와 숙종이 삼죽당(三足堂) 윤여룡(尹如龍)에게 내린 비지, 그리고 정조가 황림(篁林) 윤사진(尹思進)에게 두 차례 내린 비지로, 원본이 모두 분실되자 감사(監司) 윤사국(尹師國)이 ‘삼조어비’를 기리기 위해 목판에 친필로 ‘삼조어비지(三朝御批旨)’라고 쓴 현판을 기증하여 비각을 건립하고 현판을 걸었다. 그 후 1867년(고종 4)에 크게 보수하였으나 퇴락하자 윤씨 문중에서 다시 보수하였다. 1978년에 문중 내의 모금과 당시 군수 김용대의 군비 보조로 지금의 위치에 중수하였다. 비각은 정면 2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건물로, 지붕은 골기와로 맞배지붕을 이었다. 내부 평면은 통칸으로 마루를 깔았으며, 전면에는 반 칸 규모의 퇴칸을 설치하고 계자난간을 돌렸다.

4) 서당골(書堂谷)

유림(儒林)들이 서당에 모여 글을 읽던 곳이라 하여 서당골이라 하였다.

5) 영귀정지(靈歸亭址)

울진군 매화면 금매리에 있는 건립연대 미상의 정자 터이다. 영귀정이 있던 매화면 금매리 몽천동에 작은 연못만 남아있다.